

자원의 효율적활용으로 수급조절 이루어져야!

조 홍 래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

1976. 1. 16일부터 축우 및 양돈사료가격이 대체적으로 상승한데 반하여 양계용 배합사료 가격은 계속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계용 배합사료가격도 단백질사료가격이 상승추세에 있고 강류사료수급이 2월부터의 소맥제분량의 감소로 원활치 못하여 가격상승요인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단백질사료사정이 4월부터의 어획량 증가를 계기로 차츰 안정되리라 기대되며 국산박류는 6월에 채종실의 수확이 이루어져야 어느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2/20 이후에 도입될 옥수수 구매량은 약 24만톤에 달하므로 월간 사용량을 4만톤 수준으로 가정할 때 8월까지의 사용량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료용 옥수수 수급은 당분간 안정되리라 기대되나 강류사료와 단백질사료 및 무기물 사료중 Ca(칼슘)은 문제가 없었으나 어분공급 부족에 의한 인(P)의 공급은 적지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단백질사료나 또는 무기물사료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한 양계용 배합사료라 하더라도 옥수수 소맥피 및 대두박 이외의 20~25%에 해당하는 원료가격 변동요인으로 다소의 변동이 불가피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나 사료업계 상호간의 판매경쟁과 경영합리화로 어느정도의 소폭적인 요인은 극복되리라 기대되며 또한 변동폭이 커지면 정세는 달라지리라 전망된다.

1. 사료원료 확보

1976. 2. 18일 현재 구매완료하여 앞으로 도착 예정인 옥수수 총 구매량은 239,132톤에 달하

고 있으며 총소요 의화는 \$29,963,321에 달하고 평균 단가(C&F 톤당)는 \$125³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와같이 구매확보한 옥수수는 월평균 4만톤을 사용할 경우 6개월간 소요량이므로 2월하순 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적어도 8월까지 사용가능하게 된다. 또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적립가능액은 톤당 \$9⁷⁰이 되므로 11억 2천만원의 적립이 가능하리라 추산된다. 또한 9월부터 사용하게 될 사료용 옥수수는 앞으로 남반구의 작황과 5월의 미국의 사료곡물 파종에 따르는 기상조건 여하에 따라 시세가 형성될 것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사료용 옥수수 구매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 정확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1> 구매옥수수 도착예정

단위 : \$/톤

선적월	도착 예정월	구매물량	C&F 단가	총외화소요액
1/18	2/22	40,132	122.13	4,901,321
2/15	3/20	40,000	123.31	4,932,400
2/21	3/22	19,000	125	2,375,000
3	4	40,000	125.77	5,030,800
4	5	40,000	126.35	5,054,000
5	6	20,000	127.41	2,548,200
6	7	40,000	128.04	5,121,600
계		239,132	125.30	29,963,321

※ 사료가격안정기금 적립가능 추정액
 $\$ 135 - 125.30 = 9.70 \times 239,132\text{MT} \times 485 = 1,124,996,494$

2. 주요사료 시세

76. 1. 31 정부관리양곡부산물 가격인상을 전후하여 원료사료수급사정이 크게 변동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옥수수 대두박 소맥피 등은 가격이 고정된데 반하여 그밖의 단백질사료는 어분을 비롯하여 국산박류 등이 풀귀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밖에 배합사료의 생산량증가로 인산공급제의 공급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최근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 사료곡물의 국제시세

76. 1. 13일 이후 1개월간의 미국 시카고 곡물거래의 선물거래시세를 기준한 사료곡물과 소맥의 한국도착 환산가격 (C&F 가격)을 보면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옥수수는 3월선적분이 최저 \$123~\$130이고, 5월선적분이 \$126-\$132이고, 7월선적분이 \$127-\$134에 거래되고 있어 선적시일이 진행됨에 따라 가격이 상승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가격변동요인은 세계적인 수요증가 추세와 미국 내의 소비 및 대수요국가의 작황과 수입수요 여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 1개월간의 대두박시세를 보면 미국내에 대두재고가 최고기록을 나타내고 있어 페루의 어획부진과 어분수출금지에도 불구하고 3-5월선적분은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7월선적분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대두 및 대두박 가격이 불리하고 충분한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6년도 미국의 대두 작부면적은 75년에 비하여 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생산량에 있어서는 6%가 감소될 것 같다고 한다. 소맥의 선물거래시세를 보면 1/13 대비 2/12 현재 3월 선적분이 톤당 \$10이나 상승하였고, 5월 선적분이 \$11 그리고 7월선적분이 \$10이나 상승추세에 있다. 이와같은 소맥시세의 상승은 75년산 소맥의 흉작으로 미국산 소맥을 다량 소맥이 구매하였기 때문에 소맥의 재고가 감소되고 앞으로의 작황이 그다지 밝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표 2〉 사료곡물 및 소맥의 국제시세

단위: \$/C&F톤

종 별 선적월 월일	옥 수 수			대 두 박			소 맥		
	3	5	7	3	5	7	3	5	7
1/13	129	132	132	194	—	—	153	155	156
1/19	130	132	134	197	—	—	153	155	156
1/22	126	131	132	193	197	—	149	151	152
1/28	123	126	127	189	193	195	146	149	150
1/30	124	126	127	192	194	197	150	152	153
2/ 2	127	129	129	191	195	197	152	155	156
2/ 3	126	128	129	191	195	197	151	155	157
2/ 6	125	127	128	191	193	195	151	153	154
2/10	126	128	129	189	193	195	157	159	169
2/12	128	130	131	188	191	194	163	168	166

나. 국내 주요단미사료 시세

서울지방의 주요단미사료 시세를 보면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년 동기에 비하여 도입옥수수 가격이 4.2%, 대두박이 8.3%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임박 112.4%, 호마박 13.0%, 채종박 36.8%, 옥수수 배아박이 18.2%, 탈지강 11.3%, 소맥피 118.1% 그리고 어분상품이 19.6%, 어분중품이 19.6%가 각각 상승하였으며, 전월 동일자 대비 옥수수, 대두박 및 소맥피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옥수수구루틴이 3.8% 그리고 탈지강이 2.5%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식물성 박류인 임박이 5.4%, 호마박 7.9%, 채종박 14.8%, 옥수수 배아박이 8%의 상승세를 각각 보이고 있으며, 어분상품이 15.5%, 어분중품이 6.6%가 각각 상승되고 있다. 이와같이 동식물성 단백질 사료가격이 지난 연말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첫째, 지난해 7월을 기준하여 보면 단백질사료 배합율이 가장 높은 양계용배합사료생산(수요)량의 전월대비 2~3천톤씩 증가하여 75. 12월 생산량이 7월생산량 43.901톤 보다 17.831 톤이나 많은 61.732톤을 생산하는 등 수요가 급증한 반면 어분의 생산량이 격감되고 대두박을 제외한 모든 박류사료재고가 극도로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4월부터 어획

량이 회복되면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 주요단미사료 시세

단위 : 원/kg

종류	서울지방 도매 시세			1976. 2. 15 대 비%	
	75 2/15	76 1/15	76 2/15	75 2/15	76. 1.15
옥수수(도입)	78.52	75.22	75.22	95.8	100
" (국산)	86	95	95	110.5	100
대두박	127	116.50	116.50	91.7	100
입박	86.75	92.50	97.50	112.4	105.5
호마박	86.25	90.33	97.50	113.0	107.9
채종박	62.50	74.50	85.50	136.8	114.8
옥수수배아박	55	60	65	118.2	108
"	125	130	125	100	96.2
맥강	41	—	—	—	—
탈지강	42.50	48.50	47.30	111.3	97.5
소맥피	21	45.80	45.80	218.1	100
어분상품	140	145	167.50	119.6	115.5
" 중품	120	129	137.50	114.6	106.6

3. 배합사료가격 동향

1976. 2. 15 현재 배합사료시세를 전월 동일자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보면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사료공장의 평균 공장도 가격은 중계용사료가 3.4% 하락한 반면 큰병아리사료가 1.4~1.7% 상승되고 그 다음으로 중병아리사료가 0.9% 그리고 기타사료가 0.4~0.6%씩 각각 상승되었다. 따라서 관민수용 양곡부산물가격 인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양계용사료가격이 소폭적인 범위

〈표 4〉 양계용 배합사료가격 추세

단위 : 원/kg

양계사료명	76. 1/15	76 2/15	변동율
어린병아리	97.20	97.65	+0.5%
중병아리	85.41	86.15	+0.9
큰병아리전기	76.35	77.42	+1.4
큰병아리후기	76.41	77.72	+1.7
산란초기	84.80	85.28	+0.6
산란중기	80.32	80.82	+0.6
산란말기	75.59	75.86	+0.4
육계전기	103.11	103.76	+0.6
육계후기	99.95	100.48	+0.5
육계후기	—	99.56	—
중계사료	95.25	92.06	△3.4

내에서 변동될수 있었다는 것은 전체 배합사료의 60%에 해당되는 양계용 배합사료만이라도 가격안정을 기하고자 도입 옥수수 공급가격을 C&F 톤당 \$ 135로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의 추세를 전망할때 원료조달면에서 일부품목의 수급상 차질이 염려되고 있으나 대폭적인 가격 변동이 없이 소폭적인 범위 내에서 변동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4. 배합사료 생산추세

1975년도 배합사료 총생산량은 〈표 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900,995톤으로서 1974년도 생산실적 327,170톤 보다 26,175톤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가축별로 보면 양계용사료가 14,133톤, 낙농용사료가 28,262톤이 증가한 반면 양돈사료가 53,323톤, 비육사료가 11,852톤 기타사료가 3,395톤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특히 양돈용 배합사료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계용사료의 경우를 보면 육추용 사료와 육계용사료가 각각 12,008톤, 12,998톤이 증가한데 비하여 산란계용사료가 10,873톤이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은 하반기에 와서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7월 생산량이 26,225톤인데 반하여 8월에는 29,450톤 9월에는 32,403톤 10월에는 34,542톤 11월에는 36,513톤 12월에는 41,466톤으로 대폭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육계용사료는 6월에 최고 생산기록을 나타내고 하반기에는 계속 하락되어 12월 생산량은 7,739톤으로서 6월생산량 보다 2,370톤이나 감소되었다. 이와같은 변동 추세를 감안할때 앞으로 배합사료 생산량은 월간 85,000~90,000톤 범위내에서 생산되리라 전망되며 특히 양돈용사료의 증가가 현저하고 양계용사료와 육우사료의 소폭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5. 배합사료가격 전망

75. 12. 31일자 강류사료가격 현실화에 따르는 소폭적인 배합사료가격의 조정이 76. 1. 16일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계용 배합사료는 도입옥수수 공급단가의 하향조정 (C&F 톤

〈표 5〉 1975년도 월별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 톤

	양 계 용				양 돈	낙 농	비 육	기 타	계
	옥 추	산 탄	육 계	소 계					
1	6,934	26,268	4,155	37,717	12,217	13,241	3,416	1,029	67,620
2	7,261	31,424	5,817	44,496	12,138	11,787	3,423	705	72,74
3	7,019	28,495	6,452	41,966	11,330	14,449	2,933	1,092	71,770
4	6,459	25,456	6,298	38,213	10,954	11,193	1,958	695	63,013
5	7,570	28,074	7,704	43,348	11,972	11,940	2,137	1,071	70,468
6	9,548	31,054	10,209	50,811	10,582	12,120	1,969	682	76,154
7	8,288	26,225	9,388	43,901	9,790	10,415	1,871	741	66,718
8	8,809	29,450	9,043	47,307	10,417	11,679	2,669	1,855	73,927
9	8,938	32,403	9,578	50,919	10,141	11,991	3,687	1,101	77,839
10	9,665	34,542	8,416	52,623	11,090	14,026	3,877	1,523	83,139
11	11,184	36,513	7,836	55,533	11,483	13,511	2,835	1,036	84,408
12	12,527	41,466	7,739	61,732	13,392	14,119	2,730	1,218	93,181
계	104,202	371,370	92,994	558,666	135,505	150,671	33,495	12,758	900,995

당 \$135)으로 종전 거래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료면에 있어서는 배합사료원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옥수수가 8월사용분까지 구매되었고 또한 월별 생산량의 변동은 있으나 소매가격이 현실화되어 36kg 드리 포장당 1,520원으로 고정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배합사료가격에 변동을 갖어 올 수 있는 요인을 들자면 단백질사료의 수급 및 가격 형성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대두에서 생산되는 대두박의 관세부과수준을 현행 10%로 계속 유지하여 줄 것인가가 관심사가 되겠다. 미국산 대두시세는 막대한 재고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상승은 없으리라 보여지기 때문에 관세부과가 현행 수준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어분이 조속히 생산이 유통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어분의 출하최성기는 5월이기 때문에 3~4월의 유통량은 그다지 원활치 못할 것으로 보아지며 국내산 박류 사료는 채종실이 6월에나 수확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신규자원이 생산될 전망이 없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중 배합사료 생산면에서 생산비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단백질사료 공급부족을 들 수 있으나 대두박이 원활히

공급되어 진다면 배합사료 가격면에 커다란 변동은 없으리라 본다. 이와같이 일부 원료의 수급이 어려울 때에는 다른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체방안을 모색하되 나혼자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원료를 더 확보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물량을 골고루 나누어 사용한다면 잠깐동안의 고비는 별다른 고통없이 쉽사리 넘길 수가 있으나 각자가 다투어가며 원료를 매점하려고 하면 물량은 더욱 부족하여지고 가격만을 자극하게 된다. 현재 단백질사료 대체를 위해서는 축우사료에는 요소를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요소의 배합 수준이 달라지겠으나 축우사료중 단백질사료의 50%를 요소로 대체하고 대체된 부분을 옥수수로 대체한다면 사료의 에너지함량도 높아져 좋은 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분사정이 완화될때까지 대두박의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단백질 사료공급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다. 이와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양계용 배합사료가격은 사료이외의 어떤 여건변동이 없는 한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계속 유지하리라 전망된다.